

“새만금 국가 예산 복원하라” “모두가 만족할 축제 최선”

무주군의회, 성명서 발표... “새만금에 기대하는 도민 열망 받들어 적극 추진해야”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 삭감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새만금 캠퍼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7일 무주군의회 청사 앞에서 정부가 새만금 캠퍼리 책임을 인정하고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 전원(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2명)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캠퍼리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엄연한 정부행사”라며 “정부의 역량부족, 준비부족으로 행사가 실패했음에도 그 책임을 전라북도가 온전히 뒤집어쓰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예산 삭감에 대해 무주군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개발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7,389억원 가운데 1,861억원만 반영됐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이미 진행된 사업도 예산이 78%나 삭감돼 추진동력을 완전히 잃었다.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도한 캠퍼리 실패의 해법이 새만금 사업중단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만금 캠퍼리와 새만금



무주군의회는 7일 무주군의회 청사 앞에서 정부가 새만금 캠퍼리 책임을 인정하고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발 사업은 장수만 새만금일 뿐 사업 간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개발예산 삭감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주군의회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좁은 국토를 넓혀 산업터전을 제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점을 상기하며 “새만금은 당리당락이나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국가계획에 의해 실행돼왔고 현 정부도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처럼 한순간에 뒤집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주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에 드러운 정치적 잣대를 거두고 관련 예산을 전액 복원 계상할 것 △정부가 새만금 캠퍼리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전라북도에 대한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 △전북도민의 열망을 받들어 새만금 SOC와 기업 투자 유치 약속을 이행하고 더욱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무주=전문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자간담회 가져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훈식 군수(사진)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북도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올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정자연을 잘 보존하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축제 기획에 다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진행한

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축제에는 국화꽃길, 벗짚공예 조형물, 가족 정원 등 축제장 곳곳에 다채로운 볼거리를 조성해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축제기간 동안 △오사토의 달인을 찾아라 △장수기야 문화제 △적과의 동침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 등 총 7개 분야 65개 프로그램을 진행해 장수군 농특산물, 명소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지난 6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10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촌만들기분야(마령면)와 우수활동가 분야(학동마을 심효진 사무장)에서 국무총리상과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진안군,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서 2개 분야 유일 수상

진안군은 지난 6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10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촌만들기분야(마령면)와 우수활동가 분야(학동마을 심효진 사무장)에서 국무총리상과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농식품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농촌만들기, 마을만들기, 우수활동가 등 3개 분야에 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는 주민주도의 자율적인 마을개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고 마을의 자부심 고취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된다.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한 마령면은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인 마령활력센터를 조성하고,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마령주민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복지·교육·생활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립과 자생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사례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

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신설된 우수활동가 분야에서는 학동마을 심효진 사무장이 농식품부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 10년째 학동마을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최명근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과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가 레스토랑, 마을축제, 마을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 중심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을 방문객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정도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무장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기야문화제 14일 개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장수기야문화제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함께 오는 14일 장수 의암공원 야외무대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2018년 ‘미지에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장수기야문화제는 ‘역사의 파란’ ‘불, 철, 빛 장수기야로 미래를 잇다’ ‘장수기야 가보자 GO!’ 등 매년 새로운 축제의 주제로 올해는 ‘장수기야 함께 가야지’ ‘知’라는 주제로 제1부 역사학자 심용환은 ‘가야가 다가온다’는 주제로 오후 2시 야외무대에서 토코르서트가 진행되고 제2부 오후 6시부터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제 제1호인 장수깃절놀이를 시작으로 스트리트댄스, 장수기야프로젝트 앙상블, 창작무극 지무단, 변안면 지역아동센터 파랑새창창단, 국악계의 김연아 김나니 밴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문화원 한병태 원장은 제17회 한우랑사과랑축제에 문화강좌 민화반 작품 전시 및 체험, 장수깃절놀이 공연,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폐막식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 준비하였고 최근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집령산성으로 달라진 장수의 위상을 강조하며 “1500년 전 앞선 철기문화로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찬란했던 문화를 생각하며 준비한 문화제를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진안군은 지난 6일 복합노인복지타운 복지관에서 승강기 안전사고를 대비와 예방을 위한 2023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승강기 사고와 신고 △관리주체 구조요청 △소방서 구조대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구조 활동 △승강기 사고 분석의 단계로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또한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이기종 자사장의 승강기 안전 이용과 사고 사례 교육도 함께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일본·태국·대만 반딧불이 전문가 ‘한자리에’

무주군,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 개최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2023년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이 7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사)무주반딧불축제 재전위원회(위원장 유승열)가 주최하고 한국반딧불이 연구회(회장 남상호)가 주관한 이날 국제환경심포지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한국과 일본, 태국, 대만의 반딧불이 전문가들과 환경 관련 단체 회원, 주민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1부 국내 반딧불이 연구 및 보호 활동, 2부 국외 반딧불이 연구 및 보호 활동, 3부 종합토론, 4부 반딧불이와의 만남(현장 관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분당환경시민모임 정병준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윤은준 사진작가가 “한국의 반딧불이와 발광체”, 한국곤충생태연구소 조진일 박

사가 “국내 반딧불이 현황과 우리의 과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고신대학교 문태영 교수가 진행한 2부에서는 하라다가와 반딧불이 마을 모임 츠토무(KEIDA Tsutomu)대표가 “하라다가와 반딧불이 마을의 활동 현황”을 발표했으며 타이페이 동물원 우이신(I-Hsin Wu)박사가 “대만 반딧불이의 보전과 생태적, 산업적 발전”에 대해, 그리고 가넷대학교 안차나 탄짜른(Anchana Thancharoen)부교수가 “태국 반딧불이의 현황과 보존”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 토론시간에는 대전대학교 남상호 총장(한국반딧불이 연구회 회장)이 좌장으로 단상에 올라 앞서 발표한 주제들에 대한 전문가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저녁 7시 반딧불이 서식지로 이동해 무주지역 반딧불이 개체수와 활동 등 생태 전반을 살펴보는 등 현장 관찰의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기자

진안군,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

진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안정관리 추진 사항을 7개 분야 13개 지표로 평가하는 것으로, 7개 평가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지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추진실적, △정책협업실적, △취약계층대상 지원 실적이다.

진안군은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에게 상수도 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및 맞춤형 물품지원, 전기안전점검 등을 지원해주며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이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